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 인천항도선사회(이하 '도선사회'라 함),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조합'이라 함)는 인천항 300만TEU 시대를 넘어 인천항이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양항로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천항 기항 원양항로(미주, 구주, 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1. '공사'는 원양항로 기항 선박의 선박입출항 관련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30% 감면한다.

2. '도선사회'는 원양항로 기항 선박의 도선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항 도선점과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간의 도선 기본료를 117,770원으로 감면 적용한다. (선사별 VOD는 별도 적용)

3. '조합'은 원양항로 기항 선박의 예선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예선료에서 추가로 5% 감면 적용한다. (선사별 VOD는 별도 적용)

4. 각 기관은 인천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과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협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이후 협약의 내용 변경 등은 각 기관의 합의에 따른다.

본 협약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각 기관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본 협약서가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월 28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사장 남봉현	회장 유세완	인천지부장 배동진
남봉현	유세완	배동진